

공동주택 다용도실 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의 입주 완료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Utility Room in Korean Apartment Housing

- Focusing on the Residential Apartments built between 1995 and 2005 -

최영은* / Choi, Young-Eun
윤정숙** / Yoon, Chung-Sook

Abstract

Korean Apartment Housing, which has been built up for short-time, represents as popular housing reflecting our unique cultural background, and recently the utility room in apartment housing has been changed to accept residents' needs, focusing on their improving life styles. At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tility room between 1995 and 2005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change of the utility space in Korean Apartment Housing. For this, this research investigated 176 samples, collected in 'Apartment Encyclopedia(2004)'.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As the utility room gets bigger, the size and the ratio to the whole unit area are increased, however the ratio in small area is bigger than the ratio in other area. 2) According to time, the utility room tends to increase the size and the ratio to the whole unit area, and the increasing tendency appears distinctively after 2002. 3) The utility room used to be located with rear balcony area, however, now it appears to be planned independently with its unique function. 4) Currently, Second-Kitchen start to plan in the apartment housing.

키워드 : 공동주택, 다용도실, 면적

Keywords : Apartment, Utility Room, Space Siz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편적인 일상생활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은 1962년 마포아파트 건설을 기점으로 하여 약 4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일반적인 도시 주거 유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주택과는 달리 아파트는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본래 서구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활상을 수용,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서의 다용도실도 그 중의 하나이다.¹⁾

다용도실은 부엌 이외의 주부의 가사작업실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취사도구의 발달, 새로운 가전제품 개발, 난방방식 변화에 따른 거주자 생활패턴의 변화를 수용하여왔다.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거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온 전통적인 생활

관습과의 상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부단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공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엌을 중심으로 하는 다용도실 공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주부의 주된 작업공간인 만큼 가장 적극적인 공간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사의 주 담당자인 주부의 생활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평면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간구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다용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다용도실 공간을 물리적인 계획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면 사례를 분석하여 공동주택 내의 다용도실의 면적,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위의 결과를 가지고 평형별, 연도별로 그 변화특성을 살펴본다.

1) 백혜선·박광재, 한국 공동주택에서 다용도실의 성립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3), 2000.3. p11

* 정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12. 용어정의

(1) 다용도실 공간

다목적 공간²⁾으로서 다용도실의 기능은 주택 전 발코니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본 연구에서 다용도실 공간은 부엌과 연결되어 계획된 발코니 공간으로서, 가사작업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정하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다용도실 공간의 물리적인 계획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대상은 다용도실 공간의 평면계획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에서 입주가 완료된 민간아파트들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176개의 평면을 분석하였다. 평면자료는 수도권 아파트를 거의 모두 수록하고 있고 평형과 연대를 정리 발간하고 있는 아파트백과(2004)를 이용하였다. 도면분석은 도면상에서 제공된 면적을 기본으로 하였고, 면적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평면도에 근거하여 직접 면적을 산정하였다.

2.2. 조사 대상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평면을 분양면적(평)을 기준으로 32평 이하, 32평-38평 이하, 38-44평 이하, 44평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1995-2005 분석도면자료 사례수					
	32평 이하	32평-38평	38평-44평	44평 이상	계
1995-1999	16	21	25	14	76
2000-2005	17	29	28	26	100
총계	33	50	53	40	176

2.3. 분석 내용

다용도실 면적의 최소, 평균, 최대값, 전용면적대 다용도실의 비율의 최소, 평균, 최대값을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평형별, 연도별로 그 면적특성을 알아보았다.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은 다

2)다목적 공간인 다용도실은 담요, 이불 등의 대형빨래, 의류 등의 세탁 · 건조와 김장담그기와 같은 서비스 행위, 물건 보관, 마늘 · 양파 등의 시푸드저장과 같은 수납행위가 일어난다.(윤인원 · 오덕성, 아파트 발코니 사용실태와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2) 1999.10. p68

3)백혜선(2000)연구에서 시대별 다용도실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1962년부터 1995년까지 공급된 중층 및 고층 아파트 중에서 민간 아파트 2,072개, 주공아파트 656개 등 총 2,728개의 평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특성을 알아보고자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다용도실 평면을 분석하였다.

용도실이 후면발코니와 함께 부엌 옆에 위치하는지, 별도로 구획되는지, 보조주방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그 유형을 나누고 사례수를 평형별, 연도별로 알아보았다.

3. 연구 결과

3.1. 평형별 연도별 다용도실 면적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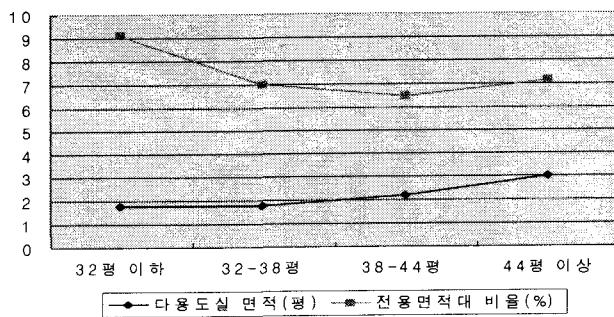
(1) 평형별 다용도실 면적특성

평형별 다용도실의 면적을 살펴보면, 평형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38평 이상부터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전용면적대 다용도실의 비율을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평형이 커짐에 따라 그 면적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전용면적대 다용도실의 비율에서 32평 이하에서 평균 9.09%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용도실 공간이 가사작업공간으로써 기본적인 필요공간으로, 소형평형에서도 일정비율을 차지하도록 계획하므로 전용면적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평형별 다용도실 면적과 전용면적대 비율

	다용도실 면적(평)	전용면적대 비율(%)
32평 이하	최소	0.68
	평균	1.76
	최대	3.41
32평-38평	최소	1.23
	평균	1.79
	최대	3.47
38평-44평	최소	0.61
	평균	2.19
	최대	3.87
44평 이상	최소	1.20
	평균	3.02
	최대	5.13

<그림 1>은 다용도실의 면적과 전용면적대 다용도실의 비율을 평형별로 평균값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1> 평형별 다용도실 면적과 전용면적대 비율의 평균값

(2) 연도별 다용도실 면적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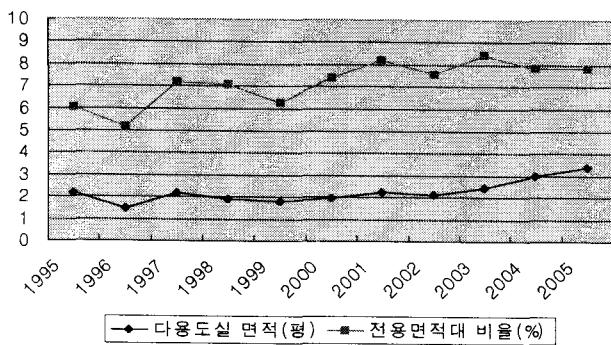
연도별 다용도실의 면적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용도실의 면적과 전용면적대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는 다용도실의 면적과 그 전용면적대 비율이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다용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관심이 반영되어 공간의 면적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연도별 다용도실 면적과 전용면적대 비율

	다용도실 면적(평)	전용면적대 비율(%)
1995년	최소	0.92
	평균	2.17
	최대	3.70
1996년	최소	0.61
	평균	1.47
	최대	3.05
1997년	최소	0.81
	평균	2.18
	최대	4.20
1998년	최소	0.68
	평균	1.91
	최대	3.41
1999년	최소	1.23
	평균	1.82
	최대	2.29
2000년	최소	0.76
	평균	1.98
	최대	3.87
2001년	최소	1.27
	평균	2.25
	최대	3.71
2002년	최소	1.09
	평균	2.12
	최대	4.45
2003년	최소	1.13
	평균	2.45
	최대	3.57
2004년	최소	1.55
	평균	3.01
	최대	5.13
2005년	최소	3.04
	평균	3.38
	최대	4.00

<그림 2>는 연도별 다용도실의 면적과 전용면적대 비율의 평균값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2> 연도별 다용도실 면적과 전용면적대 비율의 평균값

3.2. 다용도실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

후면발코니연결형은 침실과 부엌 옆에 후면발코니가 위치되

어 있고 후면발코니와 부엌사이에 문이 계획되어 있어 다용도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다. 별도구획형은 다용도실이 도면상에서 별도구획되어 나타난 것으로 다른 공간과 접해있지 않고 부엌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조주방형⁴⁾은 보조주방이 도면상에서 제공되어 나타난 평면이다. 이와 같은 3가지 특성을 파악하여 그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으로 분류한 것이 <표 4>이다.

<표 4> 다용도실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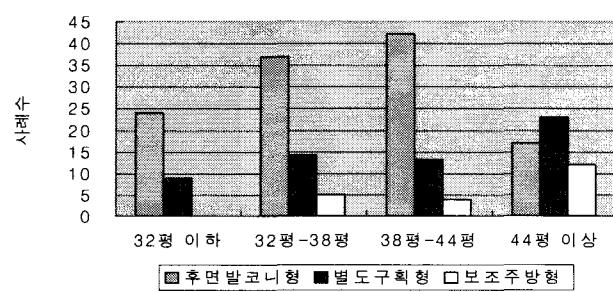
	후면발코니연결형	별도구획형	보조주방형
평면			
사례	임시동 선사현대 34평 (2000)	청담동 대우유로카운티 48평 (2003)	갈현동 대림e편한세상 44평 (2004)
특성	침실과 부엌 옆에 위치된 형	부엌에만 연결되어 별도로 구획된 형	보조주방이 제공되어 나타난 형

(1) 평형별 다용도실의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

평형별 다용도실의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을 살펴보면, 후면발코니연결형은 점차 줄어들고 별도구획형이 증가하여 나타나고, 보조주방형이 44평 이상에서 다수 나타났다. 이는 평형이 증가할수록 공간구획이 기능적으로 되어가고 평면계획이 주부를 보다 더 고려하여 계획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표 5>와 <그림 3>과 같다.

<표 5> 평형별 다용도실 유형의 사례수

	후면발코니연결형	별도구획형	보조주방형
32평 이하	24	9	0
32평~38평	37	14	5
38평~44평	42	13	4
44평 이상	17	23	12



<그림 3> 평형별 다용도실 유형의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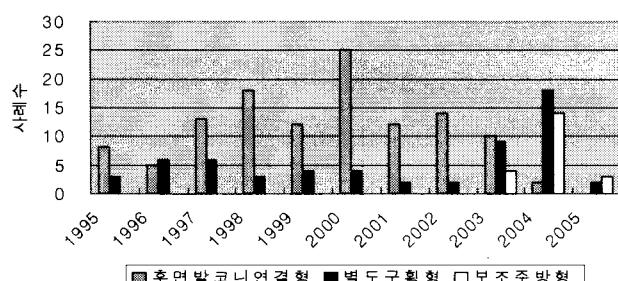
4)보조주방은 주방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주방 일을 편리하게 하고 냄새가 나는 요리를 보조주방에서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많이 계획되고 있다.

(2) 연도별 다용도실의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

연도별로 다용도실의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을 살펴보면, 후면발코니연결형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유지되다가 2002년도부터 그 사례수가 줄어들었고, 반면 별도구획형은 사례수가 크게 증가하여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성은 최근에 보조주방형의 사례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용도실의 면적이 증가하여 여유 공간을 보조주방으로 계획할 수 있었고, 또한 가사작업공간으로써 그 중요도가 커지면서 부엌 외에, 부엌의 보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조주방이 계획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연도별 다용도실의 유형의 사례수

	후면발코니연결형	별도구획형	보조주방형
1995	8	3	0
1996	5	5	0
1997	13	5	0
1998	18	3	0
1999	12	4	0
2000	25	4	0
2001	12	2	0
2002	14	2	0
2003	10	9	4
2004	2	18	14
2005	0	2	3



<그림 4> 연도별 다용도실 유형의 사례수

4.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용도실 공간은 평형이 커짐에 따라 면적과 전용면적 대비율은 증가한다. 다만, 32평 이하에서 일정비율은 필요공간으로써 다용도실이 계획되어야 하므로 전용면적대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용도실의 면적과 전용면적대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 다용도실 면적과 전용면적대비율 모두 증가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둘째, 평형별로 다용도실의 배치 및 평면계획 특성을 보면, 평형이 커질수록 다용도실이 별도 구획하여 나타났다. 연도별로 다용도실의 배치 및 평면계획특성은 부엌 옆에 위치한 후면발코니와 함께 혼재되어 다용도실이 위치되었다가 최근에는 다용도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나타난다.

셋째, 최근 도면상에 보조주방이 계획되어 나타났고, 그 사례

수가 증가하여 나타난다. 이는 가사작업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중시되어 보조적인 주방의 기능이 다용도실에 계획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단위평면에서 다용도실 공간의 계획은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단위세대 내부에 별도로 구획되어 나타났다가⁵⁾,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다용도실이 점점 없어지고 다용도실의 기능을 주방/식당과 인접한 후면발코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⁶⁾ 그러나 최근에 가사작업공간으로서 주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평면에 반영되어 계획되고 있고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평면의 물리적인 계획특성을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거주자 생활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용도실의 평면특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강부성 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2. 세진기획, 아파트백과 상/하권 2004
3. 윤선영, 아파트 가사공간 규모변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4. 윤선영·오덕성, 아파트 발코니 사용실태와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2), 1999.10.
5. 백혜선·박광재, 한국 공동주택에서 다용도실의 성립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3), 2000.3.
6. 배정민 외 2인, 민영아파트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2), 2001.5.
7. 이숙영·이연숙,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의 주호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3), 2005.2.
8. 최은희,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 평면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 2003.6.

5)백혜선·박광재, 한국 공동주택에서 다용도실의 성립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3), 2000.3. p18

6)윤선영, 아파트 가사공간 규모변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pp.49-51